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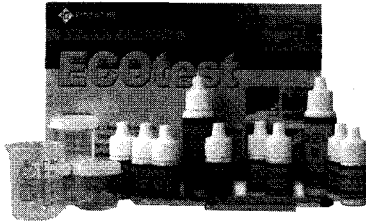
연합회

제3차 이사회 개최

연합회(회장 이상호)는 지난 3월 12일 사무국에서 2003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임원 17명중에 16명이 참석해 3월부터 실시될 올 상반기 환경기술 전문교육 건, 회보 200호 발행기념 행사 건, 최신 산업폐수처리 기술세미나 및 상담회 건 등을 논의하고 신입임원진간 상견례를 진행했다.

방류수 수질측정키트 공급 서비스개선 위해 간담회 개최



연합회는 지난 2월 25일 사무국에서 최근 국산화된 방류수 수질측정키트(에코테스트) 제조사인 (주)테크로스와 공급 서비스개선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상호 회장을 비롯해 테크로스 이강평 대표이사와 조성환 이사, 박재현 기술팀장 등 기술서비스 및 제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기술적 보완과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세부논의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그동안 공급하면서의 문제점, 공급체계의 합리화 등에 대해 토의했다.

연합회는 환경기술인들의 업무효율을 위해 국내에서 개발된 방류수 수질측정키트를 독점공급하고 있으며, 이 제품은 COD, 질소·인 등 6종류로, 오염물질 현장에서 신속하고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다.

비전문가도 쉽게 측정할 수 있으며, 재현성이 뛰어나 저렴한 가격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

지난 2월부터 공급하기 시작한 에코테스트가 최근 현장 환경기술인들에게 정확도 및 품질의 신뢰로 지속적인 공급확대가 기대된다.

한편 제조사와 판매공급처인 본 연합회는 제품의 질과 공급 서비스개선을 위해 월 1회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로 했다.

환경관리실무교육 활성화 위한 간담회 개최

연합회는 지난 3월 11일 연합회 회의실에서 한국산업기술협회 환경관리 실무교육 관계자들과 이상호 회장 및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환경관리 실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산업기술협회 최명기 실장 및 이해원 팀장이 참석한 가운데 3월 19일부터 실시한 상반기 6개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및 강사선정, 내용의 질적 향상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논의했다.

상반기 실무교육은 '폐수처리별킹 현상의 대책기술', '물리화학적 수처리 현장 실무기술', '집진장치 운전 유지 보수', '생물학적 하폐수처리기술', '악취 VOC 저감기술', '최신 고도처리 및 질소인처리 기술' 등 6종류로, 환경기술인들이 필요로 하는 현장중심의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은 각 교육당 30만원 3일씩 진행되며, 노동부에서 10만원가량 지원한다.

한편 이번 회의를 계기로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대구지하철 방화참사 성금 조선일보사에 전달

이상호 회장은 지난 2월 28일 정기총회시 모금한 '대구지하철 방화참사 유가족 돕기' 성금 150만원을 조선일보사에 전달했다. 이 성금은 지난 2월 22일 정기총회시 즉석에서 연합회임원 및 각지역협의회를 대상으로 모금한 것이다.

경남협의회

환경관계법규 해설 및 신기술 세미나 개최



육으로 회원들의 업무효율을 꾀했다.

한편 황 회장은 지난 2월 22일 연합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지역협회의 활성화를 위한 정관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이와함께 회원들에게 현장업무의 효율을 위해 연합회에서 실시하는 교육 등에 참석하여 자질향상을 꾀해 달라고 당부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교부-공익활동에 대한 지원비 청구가능

경남협의회는 지난 3월 5일 경상남도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필하고 등록증을 교부 받았다.

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에 대해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법)에 의해 앞으로 경남협의회가 주관하는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는 소요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경남협의회에서는 이법에 의한 공익사업과제(환경정책연구, 현안조사연구, 기술개발사업, 각종홍보, 기타)를 공모하고 있으며, 회원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창원 남천 대청결운동 참여

경남협의회는 지난 3월 15일 2003년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 중 하나로 창원 남천 대청결운동에 참여하였다.

이 행사에는 본협의회 소속 남천인근 배출업소와 향토사단장병, 낙동강유역 환경청 직원 및 명예환경감사원등 약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참여기관과 단체별로 정화구역을 정하여 남천의 수중 및 주변의 쓰레기 수거와 정화활동으로 쓰레기 약 5톤을 수거하였다.



양산지회, 2003년도 지도점검방향 설명 및 정기총회 개최

경남협의회 양산지회(지회장 김국태)는 지난 3월 13일 "2003년 지도점검방향 및 13차 정기총회"를 양산상공회의소에서 개최했다. 회원 및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회원배가 및 지역

연합회동정

환경보전을 위하여 함께 책임을 갖자”는 김국태 양산지회장의 기념사에 이어 황수남 경남협의회장의 격려사가 있었다.

이후 김인수 양산시 환경위생과장이 양산지역 관계법위반사례 해설과 2003 지도점검 방향에 대해 설명하였고, 이영태 청소과장이 업소의 폐기물관리실태와 개선점 및 5월 1일부터 예정된 경남도면 체육대회 기간중 배출업소의 환경보전활동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와 함께 이날 행사에서는 환경보전유 공자의 표창이 있었다.

한편 부산협의회 장진우 수석부회장, 최현국 부회장 등이 참석하여 지역간협의회의 협조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표창자명단

협의회장상 : 양산시청소과 장연진, 화성소재 김병수, 한창제지 심우성

서울협의회

환경인 가족 수련회 개최



서울협의회(회장 이귀향)는 지난 2월 15일~16일 양일간 용인 소재 애버랜드 홈브리지 힐사이드호스텔에서 환경인 가족 수련회를 가졌다.

환경인 친목도모를 위한 이날 모임에는 회원 및 가족 100여명이 참석하여 체력단련, 토론회, 레저등을 통해 가족들 상호간에 우의를 다질 수 있어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 서울협의회는 가족위주의 환경교육이나 'Farm stay'를 실시하여 환경인 가족간 원활한 커뮤니티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협의회

2월 정기 월례회 개최



울산협의회(회장 이종영)는 지난 2월 27일 울산상공회의소에서 130여 회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기술의 정보공유와 협의회의 발전을 위해 2월 월례회의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월례회에서 최근 화두로 대두된 총인·총질소 규제에 대한 회원사간의 기술 및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날 월례회에서는 울산환경보건연구원의 이수원 원장이 참석해 울산지역의 환경개선방향과 기업의 역할에 대해 환경특강을 실시해 회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특강시 이수원 원장은 울산의 과거 오염사례 설명과 더불어 행정과 환경기술인들의 노력으로 현재 많은 환경개선이 이루어졌으나, 향후 더욱더 쾌적한 우리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동참하여 개선해 나가자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의 악취 및 VOC D/B 프로그램교육과 병행 실시해 업무효율을 꾀했다. 이 프로그램은 악취·VOC 배출시설 및 관리현황을 DATA-BASE화하여 발생원에 대한 사전관리를 통한 환경오염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보건연구원 자체 관리프로그램이다.

회원사들은 4월까지 프로그램을 DOWN LOAD하여 DATA BASE 기초자료를 연구원 서버에 입력해 연구가 원활이 수행토록 협조할 방침이다.

이날 이종영 회장은 고질적인 울산의 문제인 악취에 대해 언급하고 봄부터 민감해지기 시작하는 만큼 회원사의 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협의회

환경관련 법령 해설 및 질의회신 설명회 개최

전북협의회(회장 박전수)는 지난 1월 24일 전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환경관련법령 해설 및 질의회신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170여명의 회원사 환경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설명회에서 박전수 회장이 환경기술인협합회에서 발행한 ‘2003 환경법령해설 및 질의회신집’을 자세하게 설명해 회원들의 업무효율을 꾀했다.

특히 사업장의 수질, 대기, 폐기물, 유독물 관련분야로 나눠 법령해설과 최근 환경부의 질의 회신내용과 함께 단속기관의 특성 등을 설명해 참석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환경단속방향과 오염방지설비 관리세미나 실시



전북협의회는 지난 3월 19일 “환경단속방향과 오염방지설비 관리세미나”를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와 공동으로 개최했다.

회원 및 환경관계자 1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된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전수 회장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대해, 도청 한웅재 사무관이 ‘전북도의 지도점검방향과 기업활동 애로사항 해결방안’에 대해, 테크로스 이강명 사장이 ‘수질 현장

측정 키트 에코테스트’에 대해 설명해 회원들의 업무효율을 꾀했다.

이와 함께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의 소개와 환경기술지원제도를 센터 진홍철 사무국장이 설명하고, 영산강감시대의 업무소개와 단속방향에 대해서는 엄판중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해 회원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탈취탑(토탈산업의 민윤식 과장)등 악취방지기술과 현장기계관리, 구리스 자동주입기(EL코리아의 최영규 과장) 등의 자세한 소개는 회원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으로 참석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한편, 성능이 뛰어난 국산 방류수 수질측정키트(에코테스트)를 연합회 및 지역협의회에서 공급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협의회에서도 품질을 인정하고 널리 보급하기 위해 일정기간 공급원가에 보급하기로 했다.(에코테스트 판매 공급처 : 1544-0455번) ◀